

College Students' Exploration of Major Selection Process and Awareness of New Disciplines

Eunsun Go¹, Taeun Shim^{2*}

^{1,2}Dongguk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whether the motivation for choosing a major affects the satisfaction with major decisions after entering university. Additionally, it seeks to understand perceptions of new academic systems designed to increase satisfaction.

[Contents]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 motivation for selecting a major before enrollment influences the desired major decision. In addition, it is intended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of major decision after admission,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education policy after understanding the recognition of the introduction of a new academic system to operate it effectively.

[Conclusion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intrinsic factors (aptitude and interest, dream realization) of major selection before entering college were higher than the extrinsic factors (employment outlook, grades).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satisfaction with major decision after entering college affects the satisfaction with major decision in the order of the connection between college major and employ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major and career, high school career education, and university field. Finally, it was said that 'support for opportunities to experience various studies' is the most necessary for matters to be considered at the university level in relation to the operation of the new school system, and as a problem,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phenomenon of concentration on popular departments' and 'difficulty in managing students related to major decision'.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research were presented in relation to college student's major decision and career education.

[Keywords] Major exploration, Major decision, Major decision satisfaction, Academic system

* **Corresponding to** Taeun Shim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E-mail : shim2593@dongguk.edu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대학생의 전공선택 탐색 및 새로운 학사제도에 대한 인식

고은선¹, 심태은²

¹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교수, ²동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전공선택 동기가 대학 입학 후 전공결정만족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또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학사제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대학입학 전 전공선택동기가 희망전공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입학 후 전공결정만족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학사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을 파악 후 전공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입학 이전 전공선택은 내재적 요인(적성 및 흥미, 꿈 실현)이 외재적 요인(취업전망, 성적) 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대학 입학 후 전공결정만족도는 대학전공과 취업의 연계성, 대학전공과 진로의 연관성, 고등학교 진로교육, 대학계열 순으로 전공결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학제 운영 관련하여 대학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다양한 학문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지원’ 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문제점으로는 ‘인기 있는 학과에 대한 집중쏠림 현상’, ‘전공결정 관련 학생 관리의 어려움’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전공결정 및 진로교육 관련하여 시사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전공탐색, 전공결정, 전공결정만족도, 학사제도

I. 서론

우리나라 입시위주 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흥미나 적성을 고려하여 대학 전공을 선택하기 어렵게 한다. 이로 인해 급변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융복합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진학을 목표로 하여 자신에게 맞는 진로 및 전공을 탐색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고, 대학 입학 후에야 진로탐색을 시작하는데, 이러한 비순차적인 과정은 직장 적응 단계에서 혼란을 야기한다(Lim, 2011: 447). 또한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연구에 따르면, 취업자 중 52.3%는 전공과 무관한 직장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문제를 반영한다. 대학생의 진로선택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공과 관련된 직업분야의 정보 및 진로 개발 역량 부족으로 인해 대학전공과 직업의 미스매치율이 높아지고 있다(Kim, 2022.06.09).

그렇다면 학생들은 전공선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학의 전공선택은 진로결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흥미나 적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할 것이다(Yoon & Shin, 2020: 160). 그러나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선택 과정에서 희망했던 전공과는 다른 전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학생들의 성적 및 과목 선호도에 따라 전공을 희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Han, 2021: 77). 전공선택 과정에서 취업 전망, 학교 내 인지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그 중 대학전공과 관련된 활동 선호도가 높을수록(Kwon, 2023: 51), 학생의 진로계획성, 성적, 교육포부, 부모자녀와의 전공일치 정도 등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Lee, & Eom, 2023: 67).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생이 되고 나서 계열에 따른 결정요인들을 제시하였는데 전공선택은 대학입학 후부터가 아닌 대학입학 이전 전공선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대학입학 후 학생들은 전공결정에 대한 만족을 느낄 여유도 없이 점점 낮아진 취업률로 인하여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2021년 이후 신입생들의 휴학률에서도 나타나듯이 취업에 유리한 학과로의 변경을 위해 학생의 반수 또는 재수 관련 휴학률은 2019년 휴학률에 비해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도탈락률도 0.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Newsis, 2023.3.25.). 이러한 현상은 대학에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학생유지를 위해 융합전공 및 복수전공 선택 등 다전공 학사제도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취업률 및 임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Kim et al., 2015: 37) 하나의 전공으로는 취업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여 다전공을 선택해야만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과 연결된다.

이는 대학의 학사제도와도 연결될 수 있는데 먼저 기존의 학과제의 경우 자신의 관심과 열정이 있는 1개의 학문분야를 중심으로 단일화된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지식 없이 학과를 선택한다는 단점도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

하여 다양한 전공을 탐구하고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부제를 도입하였는데, 특정 전공 쏠림과 전공 교육과정 부실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학부제와는 달리 학과(전공)에 대학 구분 없이 단과대학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광역화 선발을 제시하였다(Choi, 2018; Shim, 2008: 257). 이는 학생들의 적성과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고 입학하여 대학생활을 허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사제도이다. 하지만 이 또한 학생들이 전공진입 경쟁으로 인해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전공진입 인원제한이 있어 원하는 학과(전공)에 진입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이밖에도 학과 소속감이 줄어들고 비인기학과의 전공자 모집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하였다(MBC news, 2024.1.3.). 하지만 ‘무(無)전공’으로 전공 및 학과 구분 없는 모집, 전공의 벽을 넘는 융합교육운영, 지역 및 사회수요 등을 고려한 학과 및 계열 등 개편, 학생의 실질적 전공선택권 보장이라는 평가 기준을 내세우며 대학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Ajou University College Insurance, 2023.10.11.; U's Line, 2023.7.17.). 그리고 이러한 제도는 대학이 전공 구분 없이 신입생을 선발하고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공진입 전 여러 전공 분야를 탐색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과 다양한 학과 소속 사람들과의 교류, 학과통폐합을 통한 대학 구조의 효율성 증대, 기초학문 교육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전공결정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거론되기도 하였다.

즉 기존 학사제도의 변화가 개인이 설정한 진로와 직업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면서 전공결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Jeong & Oh, 2021: 131). 이때 전공만족과 관련해서는 전공 교과내용만족, 교수-학생간의 만족, 학과전공과 사회적 인식과의 만족, 마지막으로 전공에 대한 흥미 및 관심 등에 대한 만족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만족은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에 영향을 미쳐 취업률에도 영향을 미치며(Swo & Park, 2017: 51; Lee, 2024.2.22), 취업스트레스와는 부적상관관계를 보일 수 있다. 진로확신 및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며 대학생활 적응 만족에 영향을 미치면서(Na & Shin, 2022: 45; Heo & Kim, 2021: 59), 수업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Lim et al., 2016: 85). 그러나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전공만족이 진로, 취업, 자아 존중감, 취업스트레스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만 있을 뿐, 대학생들이 전공결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또한 이러한 변수들이 새로운 학사제도의 변화와 연결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는 부족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시행해 보고자 한다.

첫째, 대학입학 이전 전공선택 동기의 결정요인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대학입학 이후 전공결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다전공 선택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학사제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전공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4년 3월 4일부터 8일까지 D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학입학 이전 전공선택 동기와 입학 후 전공결정만족도를 살펴보고, 새로운 학사제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D대학교는 서울 소재 대규모 사립대학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전공자유선택을 위한 모집단위 운영 및 학내 제도 개선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표 1>과 같이 학생들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표 1> 설문 응답자 배경
<Table 1> Backgrounds of Survey Respondents

구분		빈도	퍼센트(%)
대학입학 이전	인문계열	453	56.8
	자연계열	344	43.2
대학교 전공계열	인문계열	535	67.1
	자연계열	262	32.9
전체		797	100.0

2. 조사도구 및 측정 절차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전공선택 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한요셉(2018)이 연구한 설문문항을 본 연구문제에 적합하게 개발하였다. 1단계 대학입학 이전 전공선택동기 및 희망전공 일치여부, 2단계 대학에서의 전공결정만족도 및 다전공 선택 이유, 마지막 단계는 새로운 학사제도인 모집단위 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설문문항은 진로탐색 교과목 강의 경력이 5년 이상~10미만인 교원 5인을 대상으로 하여 영역별 내용타당도 검증은 받아 최종 선정하였으며, 전문가들이 응답한 내용타당도 비율(CVR)의 최솟값이 Lawshe(1975)의 적용 기준 .99를 벗어난 경우 수정·보완 또는 삭제하였다. 또한 질문의 난해한 내용 및 응답의 가독성을 점검하기 위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예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절차로 구성된 구체적인 영역별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전공선택은 삶의 중요한 선택 중 하나이며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므로 대학입학 이전 전공선택 동기와 희망전공분야 일치여부 및 미선택한 이유 등으로 구성하였다. 단, 내용타당도 지수가 낮은 고등학교 진로교육 만족도에 대한 문항은 삭제하였다.

둘째, 대학의 전공결정만족도 및 영향을 미친 요인 등으로 구성된 문항은 고등학교와 대학 희망전공과의 일치여부, 고등학교 진학과정에서 희망대학의 전공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대학 입학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의 전공결정에 대한 만족도, 대학의 전공과 진로와의 연계, 대학 전공결정과 희망하는 취업과의 연관성, 대학의 전공결정외에 다른 전공을 희망하는 이유, 대학에서 다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융합 등)을 선택하는 주요 요인 등으로 구성하였다. 단, 내용타당도 지수가 낮은 대학입학전형 및 전형의 지원 횟수 허용에 대한 문항은 삭제하였다.

셋째, 학생들이 기존의 모집단위와 다르게 대학입학 후 전공을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모집단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전공자유선택을 위한 모집단위 운영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모집단위 운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기대효과, 전공자유선택 모집단위 광역화 관련 연상되는 단어 등으로 구성하였다. 단, 새로운 학사제도 입학기회 제공 시 참여여부문항은 삭제하였다.

<표 2> 설문문항
<Table 2> Questionnaire

문항	CVR	비고
대학입학 이전	고등학교 당시 계열	.99
	고등학교 진로교육 만족도	.99
	고등학교 우수 교과	.65 삭제
	전공선택 동기	.99
	고등학교 희망전공과 대학의 전공결정 일치 여부	.99
대학입학 이후 (전공결정)	대학입학 전형	.71 삭제
	대학입학 전형의 지원 횟수 허용여부	.65 삭제
	대학 전공결정에 대한 만족도	.99
	대학 전공결정과 진로와의 연계	.99
	대학 전공결정과 희망하는 취업과의 연관성	.99
	다전공을 희망하는 이유(중요한 요인)	.99
	대학에서 다전공을 선택하는 주요 요인	.99
전공자유선택을 위한 모집단위	전공자유선택을 위한 모집단위 운영 관련 고려 사항	.99
	새로운 학사제도를 운영할 경우 문제점	.99
	새로운 학사제도를 운영할 경우 기대효과	.99
	모집단위에 대한 연상되는 단어	.99
	새로운 학사제도 입학기회 제공 시 참여여부	.65 삭제

3. 자료 분석

설문조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대학입학 이전 계열별 전공선택 동기의 결정 요인, 희망전공 선택 일치 여부 및 미선택 이유 등을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 새로운 학사제도에 대한 고려 사항 및 문제점 등에 대한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t 검정(two-independent samples t -test), 대학의 전공결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설문문항의 질문에 2개 이상 중복응답을 한 경우는 다중응답분석(Multiple Respons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학생들이 전공자율선택 모집단위에 대한 새로운 학사제도 인식 분석은 워드클라우드를 키워드를 도출하고, 귀납적 내용분석(Inductive Content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학입학 이전 전공선택 요인

1) 대학입학 이전 계열별 전공선택 결정 요인

대학입학 이전 전공선택 결정적인 동기에 대한 계열별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인문계열의 경우 내재적 요인에서는 ‘나의 적성 및 흥미를 고려해서’ 318명(70.2%)으로, 외재적 요인으로는

<표 3> 대학입학 이전 전공선택 결정적 요인
<Table 3> Determining Factors of Major Selection before Entrance

구분		대학입학 이전		전체
		인문계열	자연계열	
내재적 요인	적성 및 흥미	318(70.2)	193(56.1)	511(64.1)
	꿈을 실현하기 위해	43(9.5)	21(6.1)	64(8.0)
외재적 요인	성적	41(9.1)	15(4.4)	56(7.0)
	향후 취업 전망	26(5.7)	100(29.1)	126(15.8)
	주위의 일반적인 선택	16(3.5)	14(4.1)	30(3.8)
	교육인프라	2(0.4)	1(0.3)	3(4)
기타		7(1.5)	-	7(9)
전체		453(100.0)	344(100.0)	797(100.0)

$$\chi^2=87.875(df=6, p=.000)$$

대학진학에 유리한 ‘성적’ 41명(9.1%)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반면, 자연계열의 경우 내재적 요인에서는 ‘나의 적성 및 흥미를 고려해서’ 193명(56.1%)으로, 외재적 요인으로는 ‘향후 취업 전망을 고려해서’ 100명(29.1%)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chi^2=87.875$, $p<.001$). 대학입학 이전 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는 외재적 요인(성적, 취업전망 등)보다 내재적 요인(적성 및 흥미)을 더 고려함을 알 수 있었다.

2) 대학입학 후 희망전공 일치여부

대학입학 이전 희망 전공선택에 대한 일치여부를 계열별로 분석한 결과, ‘희망 전공분야의 선택 일치’한 경우 인문계열은 345명(63.2%), 자연계열은 201명(36.8%)로 나타났으며 ‘희망 전공분야의 선택 불일치’한 경우 인문계열 108명(43.0%), 자연계열은 143명(57.0%)로 나타났다($\chi^2=28.484$, $p<.001$). 대학입학 이전 인문계열 학생들이 자연계열 학생들보다 희망하는 전공분야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희망대학 전공선택 일치여부
<Table 4> University of Hope major selection match

구분	대학입학 이전		전체
	인문계열	자연계열	
희망 전공선택 일치	345(76.2)	201(58.4)	546(68.5)
희망 전공선택 불일치	108(23.8)	143(41.6)	251(31.5)
전체	453(100.0)	344(100.0)	797(100.0)

$\chi^2=28.484$ (df=1, $p=000$)

3) 희망전공 미선택 이유

대학입학 이전 희망전공을 선택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인문계열 학생들의 경우 ‘원하는 대학진학을 우선 고려’ 44명(40.7%)으로 가장 많았으며, 반면, 자연계열 학생들의 경우 ‘해당 전공분야에 요구되는 입학성적이 높아서’ 56명(39.2%)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chi^2=18.346$, $p<.05$). 기타 의견으로는 ‘전공에 필요한 기초부족’, ‘기대소득 낮음’, ‘주위 친구들이 다른 전공 선택’ 등으로 나타났다. 대학입학 이전 희망전공 선택의 불일치 이유가 대학 및 성적이 우선 사항임을 알 수 있었다.

<표 5> 희망전공 미선택 이유
 <Table 5> Reasons for not choosing a desired major

구분	대학입학 이전		전체
	인문계열	자연계열	
원하는 대학진학을 우선 고려	44(40.7)	45(31.5)	89(35.5)
해당 전공분야에 요구되는 입학성적이 높아서	23(21.3)	56(39.2)	79(31.5)
해당 분야에 대한 흥미 상실	15(13.9)	13(9.1)	28(11.2)
안정적 직장을 구하기 어려움	6(5.6)	5(3.5)	11(4.4)
적성에 관한 확신 부족	6(5.6)	13(9.1)	19(7.6)
기타	14(13.0)	11(7.7)	25(10.0)
전체	108(100.0)	143(100.0)	251(100.0)

$$\chi^2=18.346(df=8, p=.021)$$

2. 전공결정만족도 및 다전공 선택 요인

1) 대학의 전공결정만족도

대학의 전공결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네 개의 독립변수로 측정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대학입학 이전 진로교육, 대학계열(인문계열, 자연계열), 대학 전공의 진로연관성, 대학 전공의 취업연계성 등이 포함된 모형의 F 통계 값은 103.849, 유의확률은 .000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5에서 전공결정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만족도 총변량의 34%(수정결정계수 반올림하며 동일)를 설명하고 있다.

<표 6> 회귀모형에 대한 분산분석표(N=797)
 <Table 6> Variance Analysis Table for Regression Models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205.550	4	51.388	103.849	.000
잔차	391.903	792	.495		
합계	597.453	796			

$$R^2(adj.R^2)=.344(.339)$$

개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대학입학 이전 진로교육($t=3.545$, $p<.001$), 대학

계열($t=-1.882$, $p<.001$), 대학 전공의 진로연관성($t=4.876$, $p<.001$), 대학 전공의 취업연계성($t=15.377$, $p<.001$)이며,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대학 전공의 취업연계성, 대학 전공의 진로연관성, 대학입학 이전 진로교육, 대학계열 순으로 전공결정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7> 대학의 전공결정만족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N=797)

<Table 7>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Satisfaction with Major Decisions in Universities

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대학입학 이전 진로교육	.083	.023	.107	3.545	.000
대학계열	-.101	.053	-.55	-1.882	.000
대학 전공의 진로 연관성	.162	.033	.155	4.876	.000
대학 전공의 취업 연계성	.394	.026	.473	15.377	.000
(상수)	1.610	.123	,	13.143	.000

2) 대학의 다전공 선택 이유

대학에서 결정한 주전공 외에 타전공인 다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융합전공, 연계전공 등)을 희망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내재적 요인으로는 ‘개인적으로 흥미 있는 영

<표 8> 다전공 선택 이유

<Table 8> Reasons for choosing a multi-major

항목		사례수	퍼센트(%)	케이스 중 %
내재적 요인	개인적으로 흥미 있는 영역이라서	389	24.7%	57.0%
	나의 적성에 부합되므로	213	13.5%	31.2%
	나의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므로	155	9.9%	22.7%
	나의 재능과 관련이 있으므로	84	5.3%	12.3%
외재적 요인	취업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되므로	265	16.9%	38.9%
	현재 전공보다 졸업 후 진로와 관련이 있어	174	11.1%	25.5%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전망이 좋은 전공이라서	129	8.2%	18.9%
	사회적으로 인기 있는 전공이므로	75	4.8%	11.0%
	사회적 평판이 높은 수준이므로	72	4.6%	10.6%
	주변 사람의 추천에 의해	15	1.0%	2.2%
기타		1	.1%	.1%
전체		1,572	100.0%	230.5%

역이라서'가 389명(57.0%)으로, 외재적 요인으로 '취업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되므로'가 265명(38.9%)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다전공을 희망하는 이유는 내재적 요인이 외재적 요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공을 이수하고 대학 입학 과 동시에 진로와 취업을 고민하여 졸업과 동시에 취업과 직결될 수 있는 다전공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대학의 새로운 학사제도에 대한 인식

1) 새로운 학사제도 관련 연상되는 단어

대학입학 후 전공을 결정할 수 있는 '모집단위 광역화' 관련하여 연상되는 단어를 분석한 결과 '자유전공(9.04%)', '학부모집(6.87%)', '기회확대(5.79%)', '계열모집(5.61%)', '선택권(5.06%)', '무전공(4.88%)', '전공선택(4.88%)', '다양화(3.44%)', '통합(3.07%)', '자유로움(2.89%)', '단과대(1.81%)', '진로탐색(1.63%)', '융합, 전과, 혼란(0.9%)' 등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 '비인기과 이탈률 상승, 문이과통합, 학과구분없음, 평준화, 입결하락, 가능성, 모호, 바람직하지 않음, 비인기학과 폐지, 학생쏠림'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였다. 대학생들은 새로운 학사제도가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보다는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운영방식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 새로운 학제인 모집단위 광역화에 대한 인식

<Figure 1> Awareness of the wide-area recruitment unit, a new school system

2) 새로운 학사제도 운영 관련 고려 사항

2025학년부터 전공자유선택제로 입학하게 되는 새로운 학사제도 운영 관련하여 대학차원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분석한 결과 ‘다양한 학문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지원’(M=3.7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공탐색에 적합한 교육과정’(M=3.67), ‘진학 및 취업연계 지원’(M=3.65), ‘체계적인 진로탐색 교육과정’(M=3.64), ‘전공탐색 및 상담 등이 가능한 교수 인프라 구축(M=3.60)’ 등이 평균(M=3.51)보다 높게 나타났다. 계열별 평균 차이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는 ‘진학 및 취업연계 지원’(t=-2.762, $p<.001$)이 인문계열보다는 자연계열 대학생들에게 높게 나타났다.

<표 9> 새로운 학사제도 운영 관련 대학의 고려사항

<Table 9> University's Considerations for the Operation of the New Academic System

구분	대학교				전체		t
	인문계열		자연계열				
	M	SD	M	SD	M	SD	
다양한 학문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지원	3.69	.93	3.77	.91	3.71	.93	-1.219
전공탐색에 적합한 교육과정	3.63	.92	3.76	.87	3.67	.91	-1.844
진학 및 취업연계 지원	3.59	.94	3.78	.89	3.65	.93	-2.762**
체계적인 진로탐색 교육과정	3.61	.90	3.69	.90	3.64	.90	-1.281
전공탐색 및 상담 가능한 교수 인프라 구축	3.55	.93	3.70	.84	3.60	.91	-2.242*
장학제도 및 학생지원 서비스	3.35	.99	3.55	.97	3.42	.99	-2.747**
학생 지도 및 상담	3.37	.95	3.50	.95	3.41	.95	-1.791*
기초소양을 키울 수 있는 교양교육과정	3.34	.90	3.50	.94	3.39	.92	-2.337*
유연한 학사제도	3.28	.98	3.42	.96	3.32	.98	-1.871*
비교과 프로그램지원	3.26	.94	3.42	.99	3.31	.96	-2.194*
전체	3.45	.74	3.61	.72	3.51	.73	-2.597*

* $p<.05$, ** $p<.01$

3) 새로운 학사제도 운영 관련 예상 문제

새로운 학사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대학생들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인기 있는 전공의 쏠림현상’(M=3.94), ‘전공결정 관련 학생 관리의 어려움’(M=3.35)이 평균(M=3.34)보다 높게 나타났다. 계열별 평균 차이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는 ‘전공결정 관련 학생 관리의 어려움’, ‘교수와 학생 간 의사소통 및 협력 어려움’이 인문계열보다는 자연계열 대학생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표 10 > 새로운 학사제도 운영 관련 예상 문제
 <Table 10> Projected problem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New Academic System

구분	대학교				전체		t
	인문계열 (N=535)		자연계열 (N=262)				
	M	SD	M	SD	M	SD	
인기 있는 전공의 쏠림현상	3.92	.97	3.98	.90	3.94	.95	-.936
전공결정 관련 학생 관리의 어려움	3.27	1.01	3.50	1.02	3.35	1.02	-3.024**
전공에 대한 소속감 박탈	3.21	1.10	3.25	1.08	3.23	1.10	-.472
학생 간의 경쟁 심화	3.11	1.05	3.24	1.09	3.15	1.06	-1.624
교수와 학생 간 의사소통 및 협력 어려움	3.01	.95	3.15	1.02	3.06	.98	-1.822*
전체	3.01	.75	3.42	.77	3.34	.76	-2.109*

* $p < .05$, ** $p < .01$

4) 새로운 학사제도의 운영 관련 지원 유형

새로운 학사제도 운영 관련하여 대학 차원에서 반드시 지원해줬으면 하는 의견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전공을 접할 수 있는 기회 및 체험’, ‘인원 제한 없는 전공선택’ 관련 ‘전공선택지원’(45.02%)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자신의 흥미나 적성을 고려한 진로탐색 활동’ 관련 진로지원(23.98%), ‘전공쏠림 현상 완화 관련 행정지원’,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선택’ 관련 ‘상담프로그램지원’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IV. 결론 및 제언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진로연계교육이 도입되면서 중·고등 진로교육이 확대되었다. 더불어 미래사회에 수요가 높은 분야의 진로교육이 확대되어지고 전 국민의 맞춤형 진로설계를 하면서 전공선택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본 연구는 미래사회 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대학입학 이전부터 전공탐색 과정에서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 대학입학 후 전공결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공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학사제도에 대한 신입생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파악하여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입학 이전 전공선택 동기의 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 내재적 요인인 ‘학생의 적성 및 흥미를 고려한 것’이 64.1%로 외재적 요인인 ‘향후 취업전망을 고려한 것’이 15.8% 보다

높게 나타났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계열 학생은 적성 및 흥미 고려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자연계열 학생들은 향후 취업전망을 고려한 것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적성 및 흥미를 고등학생의 전공선택 요인으로 본 한요셉(2018)과 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가 진로준비행동과의 효과를 본 김정아(202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대학입학 이전 희망하였던 전공과 현재의 전공선택 일치 68.5%로, 불일치 31.5%로 나타났다. 희망전공 선택 불일치에 대한 이유로는 대학을 우선 지원, 희망하는 전공분야의 입학 성적 때문인 외재적 요인으로 응답하였다. 불일치한 원인은 희망하는 전공분야의 흥미 상실이나 적성 부족한 내재적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을 입학한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결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학전공의 취업연계성’, ‘대학전공의 진로연관성’, ‘대학입학 이전 진로교육’, ‘대학계열’ 순으로 나타났다. 신입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전공이 향후 취업 및 진로와의 연관이 있다고 인식할수록 전공결정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정한 주전공 외에 다전공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개인적인 흥미있는 분야와 취업 기회 확대 도움을 선택하였다.

마지막으로 전공의 벽을 허무는 새로운 학사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자유전공’, ‘학부모집’, ‘기회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학사제도 운영 관련하여 대학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학생들은 ‘다양한 학문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공탐색에 적합한 교육과정’, ‘진학 및 취업연계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전공선택을 위해 새로운 학사제도가 자신에게 기회 확대 및 전공선택에 다양화를 줄 수 있지만 학부제와 같이 인기 있는 학과에 대한 집중쏠림 현상과 비인기 학과의 통폐합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문적 다양성을 증진하고자 다양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공탐색 교육과정 및 환경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들이 전공선택자유 상태로 입학하는 경우 대학마다 2학년 진학 전 학과를 선택하는데, 이때 전공배정 인원에 제한을 두는 것은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진입요건에 대한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교육혁신을 위한 계획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환경에 대한 혁신지원이 필요하다. 그 중 학생 자신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전공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생설계(융합)전공 또는 자기설계(융합)전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생들이 2개 이상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전공제도를 강화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공이수 규정을 마련하고 최소전공 이수학점을 하향 조정하여 다전공 선택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며, 전공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 간 학점교류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Ajou University College Insurance Co., Ltd. (2023.10.11.). Will the wide area of recruitment units lead to educational innovation that will blow into our schools. Retrieved 2024.2.5. from <https://url.kr/1gxhec>.
- Choi, H. W., Lee, S. H., & Eom, M. Y. (2023). A Study on the Congruence between College Major Hopes and Actual Choices of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61(4), 67-100.
- Choi, M. H. (2018) New school system = wide-area recruitment units, *Seoul National University Journal*, 47. Retrieved 2024.2.5. from <http://www.snujn.com/news/2815>.
- Hahn, K. D. (2021). High School Students' Hopes and Choices for College Economics Major,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28(1), 77-89.
- Han, Y. S. (2018). Selection of university major fields and the role of government, *[KDI] Research Report*.
- Heo, E. J. & Kim, E. J. (2021).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Major Selection Motivation on their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1(12), 59-69.
- Jeon, B., Ahn, S. H., & Oh, Y. J.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Job-seeking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Support and Friends-Seniors Support.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11(1), 159-181.
- Jeong, B. H. & Oh, J. H. (2021). The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Occupational Values, and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 on Job Preparation Behavior: Focusing on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ecretarial Scienc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11(2), 131-152.
- Jyung, C. Y. & Lee, Y. G. (2020). The Meta-Analysis on Variables Related to Parents' Career Support and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Variables for Adolesc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3(4), 125-151.
- Kang, H. Y. & Lee, D. H. (2022). Exploratory Study on College Major Changing Experiences of the Students Who Transferred to Another Major.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9(1), 27-51.
- Kim, K. J. (2022.6.9.). What is the discrepancy between major and social career path, and why, *Oh My News*. Retrieved 2024.4.8. from <https://url.kr/yhm4o3>.
- Kim, H. H., Woo, H. S., Kim, H. K., & Kim, B. H. (2015). The Influence of Dual-major

- Degree Program on Employment Outcomes of University Graduates. *Research on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18(1), 37-70.
- Kwon, S. A. (2023). Changes in High School Students' Preferences for Activities, Occupations and Major Courses to Choose College Majors between 2017 and 2021. *Educational research*, 45(2), 51-78.
- Lawshe, C. H. (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4), 563-575.
- Lee, S. H. (2024.2.22.). Exploring various majors. It has a lot of influence when getting a job, *Munhwa Ilbo*. Retrieved 2024.4.8. from <https://url.kr/n4ieqj>.
- Lim, D. K., Kwon, H. S., & Oh, W. J. (2016). The Influence of Major Selection Motive on Major Satisfaction, Instruction Participation, Employability, Employment Strategies, Major Hope for Employment: In case of students who are majoring in Tax and Accounting.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6(4), 85-109.
- Lim, E. M. (2011). Exploring Korean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 Process and Mediating Factor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2(2). 447-466.
- MBC News (2024.1.3.). Will the "Majorless Admission" be promoted, and will the unpopular department disappear? Retrieved 2024.2.5. from <https://url.kr/xzs71d>.
- Na, E. S. & Shin, S. Y. (2022). The effect of admission satisfaction,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career confidence of students on campus life satisfaction: A case of S University. *A Study on Safety Culture*, 19, 45-62.
- Newsis (2023.3.25.) Freshmen and SKY students dropped out of school ↑. The polarization of employment continues, the Dong-A Ilbo. Retrieved 2024.4.8. from <https://url.kr/w43li9>.
- Shin, Y. H. (2008). An Analytical Study for the Wide Unit of Students Recruiting System in the Universiti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14(2), 257-277.
- Swo, H. J. & Park, H. J. (2017). The Impact of Satisfaction with Major Curriculum on Acquisition of Certification and Employment for College students with Major in Healthcare. *Korean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22(1), 51-60.
- U's Line (2023.07.17.). Two faces of Lee Ju-ho's "Mainless Major" and "Making School Walls" fusion. Retrieved 2024.3.5. from <https://url.kr/8tbe79>.
- Yoon, H. J. & Shin, S. M. (2020). Exploring the segregation of gender majors in college major selection, 2020, KRIVET Panel Academic Conference Paper Collection: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159-176.